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특히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직접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는것만 같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을 잘하였다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력사적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많다고,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빛나는 력사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건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통계승과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였기에 조국이 해방된 다음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박물관창설을 친히 발기하시였고 박물관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박물관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이자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로정을 잘 알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히 보인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라

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전시된 모든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진들로 자라고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원수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악랄해지고있는 오늘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개

건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데 대한 문제, 박물관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의 원칙, 력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강

사들이 정책적선에서 강의내용의 중심을 틀어쥐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통속적으로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며 이동강의도 적극 진행할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물들을 원상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박물관의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회를 몸소 만나시고 건강도 넘려해주시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초소에 서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길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병진로선 - 4년이 말해주는 진리

3월 31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지 4돛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공화국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과 민족의 천만년 미배를 내다보시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그 길에 바쳐오신 철세위인의 불면불휴의 령도의 자욱, 쌓으신 크나큰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있다.

당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추켜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세게 나아가는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군사적압박과 경제제재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고있었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민족자주위업실현의 합법적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구현해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고 심화발전으로서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할수 있는 백승의 보검을 칠수 있게 되었다.

병진로선이 발표된 후 세계의 곳곳에서 《조선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아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는 찬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온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새로운 로선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생겨나는것도 아니며 또 누구나 내놓을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

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고 그 길에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열렬한 헌신성을 지닌 철세의 위인만이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새로운 병진로선의 관철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은 끝이 없었다. 때로는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추시험발사를 지도하시려고 풍랑사나운 바다길에 오르시였고 언제인가는 위험천만한 탄도탄추조립전투현장을 몸소 찾으시여 여러날에 걸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직접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기도 하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보여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일사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던 얼마전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신 이런 수많은 헌신과 로고의 낮과 밤이 있어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고 위력한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었다.

지난해만 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었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속에서 조선은 핵탄두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에 탑재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까지 날려보낼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공화국의 군력이 얼마나 위력해졌는가를 잘 반증해주고있다. 이것이 다 병진로선의 덕이다.

지난 수년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겨냥하여 수많은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정세를 수시로 전쟁점점으로 몰아왔지만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고 공포의 비명만 질러온것은 병진로선으로 공화국의 군력이 훨씬 더 강화되었기때문이다. 핵은 전쟁방지를 위한 강위력한 억제력이다. 지금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운명, 겨레의 안전을 지

켜주고있는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핵이 아니라 조선이 틀어쥔 자위와 정의의 핵이다. 병진로선이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은 날로 더욱 굳세여지는 우리 겨레의 믿음이다.

공화국이 채택한 병진로선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천만민 옴은것이고 백승의 로선이라는것은 경제와 인민생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명백히 확증되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 핵억제력이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평화적건설에 수많은 인민군인들을 동원하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들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져 평양에서만도 한해에 모두를 놀래우는 황홀한 거리를 이 하나씩 일떠서고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안과종합병원

이 비롯하여 희한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즐비하게 솟아났으며 인민들이 터치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더욱 커

가고있다. 자강력의 기치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더욱 현대적으로 개진되고 어디서나 생산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나오고있으며 질 좋은 국산품들이 삼점과 백화점마다 가득 차넘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이제는 분초를 다투며 전변의 새모습을 련속 수놓아가는 공화국에서는 북부지역에서 련이어 일어났던 자연의 엄혹한 재난도 빠른 기간에 가시고 원래와 비교할수 없이 더욱 훌륭한 새집들과 거리, 학교와 탁아소들이 일떠서 세인을 놀래웠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최상급의 려명거리도 자력의 역센 힘, 인민이 누리는 행복을 표시하며 성대한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있어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애국의 병진로선이 채택되어 흘러온 지난 4년의 날과 달이 말해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병진로선이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백승의 로선이라는 것이다. 그 로선은 공화국을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손잡아 이끌어가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병진로선을 백승의 진로로 삼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갈것이며 이 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교육사업을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이 땅의 지도를 보면 서해로 빼죽이 나온 칠산반도앞에 하나의 작은 섬으로 찍혀진 섬인 수운도가 있다. 망망대해의 한 가운데 솟은 섬에는 등대가 있고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있다.

섬에는 수운도분교(소학교)가 있다. 교정에는 두명의 학생과 두명의 교원이 있다. 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그 학교는 때로 한명의 학생을 위해 문을 연 때도 있었다. 한명의 학생을 위하여서도 학교가 있고 교원이 있는것이다.

몇해전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무도유치원과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무도분교(고급중학교)를 돌아보시며 이런 유치원과 학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일떠설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요람이라고 하시였다.

동서해의 등대섬뿐아니라 하늘아래 첫 등네로 불리우는 외진 산간벽지 할것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꼭 학교가 있는것이 공화국의 교육현실이다. 교육을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우선시하는 공화국의 교육정책과 시책의 우월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여로부터 한해 일을 궁냥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내세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새 세대들을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며 전면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건설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을 기본고리로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높은 수준의 중등일반교육체계를 갖추고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교육제도로 더욱 개선강화되게 되었다.

공화국에서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로 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앞으로 일생동안 공부할수 있는 기초를 쌓을수 있는 교육체계가 완비되게 되었다.

고등교육체계를 갱신하고 정비하며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하여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는 문제, 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교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육성

을 위한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언제인가는 국가교육발전전략을 보여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교육사업이 세계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주택들과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고 하시며 교육자들이 조국

의 미래를 가꾸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믿음과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다. 미래의 역군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을 그토록 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에 의하여 머지않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에게 려명거리의 새 집이 차례지게 된다.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시고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평양가방공장과 평양초등학교도 현지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에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교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국가지도자의 현명성은 눈앞의 국가적리익만이 아니라 전망적리익, 오늘날 아니라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통찰하는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에 있다.

교육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고 강성부흥의 앞날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미래를 키우는 사랑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지난해 4월 어느날이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몇달전 그 공장에서 생산된 학습장을 보시였고 오늘은 현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고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하시며 생산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생산량을 늘이도록 하는 문제, 기업관리의 정보화수준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문제 등 앞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

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껴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전당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전 정초에 한 인민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시설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큰 랭동시시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구동기, 랭동저장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인민군대가 물고기잡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앞장에 서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류 다른 명령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했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하는것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군사부문과 관련한 명령으로만 알고 있는 최고사령관 명령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에 떠받들려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이다.

교사와 기숙사, 야외 체육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초등교육 및 생활 환경의 본보기, 표준이 라고 할수 있다. 기숙사 만 보아도 원아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져 있다.

원아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해주는데서 중요한 것은 동심에 꼭 맞는 주위환경이다.

기숙사벽들마다에는 동화적이면서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들을 형상한 재미나는 직관물들이 그려져 있다.

위생상식, 자연현상, 민속놀이, 교통규정, 공계 중도덕, 속담, 노래 등이 머리에 쑥쑥 들어오게 품들여 만든 직관물들과 《소년장수》를 비롯한 만화영화들에서 나오는 재미나는 장면들을 형상한 그림들을 바라보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는 원아들의 얼굴에는 웃음 가득, 기쁨 가득 넘친다.

산뜻하고 아담하게 꾸려진 침실들은 또 얼마나 멋있는가.

키낮은 침대에 색깔 곱고 포근한 이불과 담요가 있고 책상, 액정TV, 세면장 등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온갖 조건들이 그쁘히 갖춰져 있다.

그런가하면 식사실, 리발실, 목욕탕, 치료실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있다.

식당에서는 원아들의 구미에 맞게 월별, 주별, 일별 식사차림표를 만들어놓고 그에 맞게 봉사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가시간에는 원아들에게 맛있는 빵과 우유, 사랑, 파자,

과일 등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명절이나 생일날이 되면 떡, 짜배기, 노루유개장, 순대, 오리고기볶음, 고등어구이, 쟁탕, 소고기볶음, 낙지볶음, 과일, 당과류 등을 푸짐하게 차려주어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원아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평양초등학교에서 료리사와 의사, 판리이군, 선생님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종업원들이 원아들을 살뜰히 돌봐주고있으니 이들만한 《어머니부자》가 어디 또 있으랴.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아프면 아플세라 따듯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들의 살뜰한 손길이 있어 원아

들 누구나 아무런 근심 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부모가 없다고 하겠는가, 누가 이들을 고아라고 부르겠는가.

하기에 원아들은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에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고, 우리의 집은 어머니당의 품이라고

본사기자 김철호



얼마전 캐나다국제법률가인 크리스토퍼 블랙크는 글 《조선에 대한 큰 거짓말이 드러났다》를 발표하였다.

아래에 글을 요약 소개한다.

나는 지난 시기 국립법률가협회 성원들이 몇몇의 미국인 법률가들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여 그 민족과 그들의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그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들이 귀국하여 함께 발표한 공동기사의 제목은 《조선에 대한 큰 거짓말이 드러났다》이다.

이 제목이 선택된 이유는 서방세력의 지배가 없이,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자기들만의 자립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와 환경을 마련하여놓은 조선사람들의 성과에 대하여 세상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서방이 꾸며내어 내몰리던 부정적인 선전과 이야기들이 모두 엄청난 거짓이라는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때문이다.

평양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우리를 안내했던 법률가 리명국은 저녁석상에서 조선이 핵억제력을 필요로 한것은 조선을 반대하여 세계적범위에서 벌리고있는 미국의 책동과 위협때문이었다고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그후 러행기간 고위급 정부 관리들과 만났을 때에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듣게 되었으며 그들도 만약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의 남조선강점이 더는 정당화될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곧 조선의 통일로 이어질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될것이다.

《사회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사회적관계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들이 아니라, 우리 법률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평화에로의 길을 걷자면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 더욱 확신하는바이지만 서방 언론의 주장과 너무도 다른것은 조선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그들이 직면한것은 핵위험이며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조선전쟁시기에 로획된 미국의 문건들중에서 1950년에 있는 조선에 대한 침공은 미국이 계획한것이라는것을 여실히 확증해주는 증거물들을 보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침공은 미군과 남조선군이 수십년전 조선을 침략하여 강점하였던 일본군 장교들과의 협력하에 단행한것이였다.

당시 조선의 방어와 반공격

준수에 대해 관심한적이 없었으며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미국의 총적목적이 만주와 씨비리를 침략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로서 북조선을 정복하는것이였기때문이다.

대부분 서방인들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북조선에 입힌 파괴상에 대한 리해를 거의나 가지고있지 못하다.

당시 평양은 본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면밀한 목적을 달하였으며 미국비행기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였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시기 일본에 투하하였던것보다 더 많은 량의 폭탄을 조선땅에 떨어뜨렸다.

미군은 공산당원들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까지 추적하여 살해하였다.

신천에서 우리는 미국군인들이 수백명의 민간인들을 도랑에 강제로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려 태워죽인 증거물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또 우리가 들어가본 방공호의 벽체는 너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민간인들의 불타버린 살점들로 인해 검게 변해있었다.

통풍구를 통하여 휘발유를 뿌려 사람들을 모두 태워죽인 미국군인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

바로 이것이 조선전쟁에 대한 진실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사람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는 현실이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탓할수 있었는가?

그러나 조선사람들은 이런 력사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전 원수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자 한다.

당시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인민군장령은 자기는 원래 작구나 시인, 기자가 되는것이 꿈이었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불행으로 하여 그와 그의 다섯 형제는 군복을 입고 분계선의

비무장지대를 거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들의 투쟁은 미국 국민들이 아니라 그 정부를 반대한것이라고 한다.

그는 신천에서 잃은 자기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목을 매여달린채 고문을 당하였고 그의 할머니는 총창에 배를 찔리워 죽었다.

《보라, 우리는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미국인민들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호전적인 미국의 정치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들씌우려는 그들의 책동을 반대한다.》

우리 대표단성원들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위험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미국이 《체제변화》와 《선제전쟁도발》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저방사능핵무기개발을 추구하며 국제법준수를 거부하고 통간을 부리고 있는 현 상태에서 조선이 《핵카드》를 내든다고 하여 별로 놀랄것은 없다.

미합중국의 핵전쟁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에서 조선에 다른 선택권이 있겠는가? 그 리유는 오직 하나, 로씨야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구축해놓은것처럼 조선도 핵을 보유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미국국민들이 계속되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자체로 사고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것

이며 조선반도침략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미국 지도층이 대화와 화해의 길을 막아버리는데 대해 항의하지 못하는것이다.

조선에 대한 정책의 근본바탕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 조선은 거듭하여 자기들은 그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 누구와 전쟁을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목격하였으며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어떤 미국의 침략도 조선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칠것이 이 민족이 장기간에 걸치는 고난에 찬 싸움도 모두 견디며 내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꽃이 피는 봄이 왔다. 겨우 내 잠을 자던 나무들과 잔디밭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사람들은 활력에 넘쳐 일터로 오간다.

봄은 자연의 모습만을 바꾸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도 새 모습으로 일신하고있다.

공화국에서 3월과 4월은 봄철위생월간이다.

위생문화사업은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질병의 근원을 없애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다.

해마다 봄계절이면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집안밖의 먼지를 털어내고 아파트들에 색깔 온외장재를 바르는가 하면 울타리에 회칠을 하기도 한다. 또 인도로에 문양고운 블록크를 깔기도 하고 도로를 다시 포장하기도 한다.

이뿐이 아니다. 거리와 마을들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 잔디를 심고 가꾸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진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거리

와 마을, 일터의 모습은 겨울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새롭게 단장되며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으로 변모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이며 애국은 바로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더우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은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지금 누구나 다 3, 4월봄철위생월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가 사는 가정과 마을, 자기의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켜가고있는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 이 계절에 꽃과 함께 피어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애국의 마음이 아닌가싶다.

본사기자 김영춘

조선에 대한 큰 거짓말이 드러났다

은 미국에 의하여 《침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미국은 언론을 기만하고 저들이 저지른 북침전쟁을 일명 《치안작전》이라고 예들러 표현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내었다. 3년간의 전쟁, 수백만명 조선인의 죽음,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그때로부터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가해왔다.

1950년 당시 《치안작전》에 관한 유엔의 투표자체도 이전 쏘련이 안전보장이사회투표에 불참한것으로 하여 위법으로 된다.

추종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투표를 해주었지만 그들의 투표는 사실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치안작전》이라는 것이 평화유지를 위한 행동도 아니였으며 유엔헌장에 따른것도 아니였기때문이다.

유엔헌장 제7조 제51항에는 모든 국가들은 무장공격에 대처한 정당방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져있으며 조선이 부당한 상황과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이 조항에 부합되는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 한번 법

의 불안정을 지속시킴으로써 많은 미군을 여기에 남겨두려고 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남조선, 북조선, 일본사이의 관계를 조종하여 유사시 중국과 로씨야를 반대하는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한다. 일본내에서 오끼나와에 있는 군사기지를 들어내라는 압력이 강해지고있는 중에도 조선지역을 차지하려는 군사작전과 전쟁연습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관심사로 여겨지고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되는것은 조선이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어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가 안하였는가가 아니라 조선반도를 타격할수 있는 핵무력을 소유하고있으며 오늘날에는 로씨야와 중국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미사일방위체계인 《싸드》를 배치하고있는 미국에게 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만약 평화가 온다면 그들이 핵무기에 더는 집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오만하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이고

로 된다.

대좌는 우리에게 귀국한 뒤 사람들에게 오도된 소식을 전하지 말고 그들이 조선에서 어떠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미국에도 우리처럼 평화를 사랑하며 자식을 가진 부모들과 가정들이 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우리는 평화의 메세지를 안고 돌아가려는 우리 대표단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당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언덕을 자유로이 거닐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다.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그는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조선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고 있을 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피뢰체제는 전쟁을 고취하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스텔스폭격기들과 공군, 엄청난 병력과 포병 및 장갑부대들을 동원한 사상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수개월에 걸쳐 벌리고있는것이다.

파연 조선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전쟁 《연습》이 어느 시각에 실지 전쟁으로 바뀔수 있다고 보는것이 놀라운 일인가? 그들이 이 《연습》이라는것이 침공을 가리우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는것이 이상한 일인가?

조선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주의경제체제, 문화를 비롯하여 조선의 실제모습에 대하여 할수 있는 이야기는 무진장하다.

다만 그 내용에다 서술하기에는 이 글이 너무도 부족하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조선을 방문하여 우리가 체험했듯이 자신들이 조선을 직접 목격하기를 바란다.

나는 조선방문기념으로 제출하고있는 우리의 이 공동기사의 마감부문을 가까이하면서 사람들이 이 글을 받아들이고 심층히 음미해보고 이 글속에 담겨져있는 평화의 목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특수작전》이 불러올 것은...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일축 촉발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30여만의 침략무력과 《칼빈슨》호핵항공모함타격단, 《B-1B》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한 상태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있다. 얼마전에는 《F-35B》스텔스 전투기편대들을 동원하여 정밀폭격훈련이라는것까지 감행하였다.

극히 엄중했건은 이 실전연습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노린 《특수작전》실행에 모를 박고있는것이다. 이번 《특수작전》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도의 흉악무도함에 있어서나 동원된 역량과 수단의 규모에 있어서나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훈련을 요구도 이번 《특수작전》에 투입된 살인무리들만도 미제 침략군 특군의 제75공수연대 《레인저》부대, 공군의 제353특수전단, 해병대 제31해병정단을 비롯하여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000여명에 달한다. 미국대통령의 직접

적인 지시에 따라 상대측의 《수뇌부제거작전》 등을 전문으로 감행하여 《둔갑술을 쓰는 무사부대》로 알려진 《테브그루》(일명 《네이비셀》6팀)와 《백악관별동대》로 불리는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멜라 포스》악당들까지 기여들었다. 그런가하면 영국, 네델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추종 국가의 《특수부대》들까지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한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이 부대들이 현지에서 벌려놓고있는 《특수작전》훈련의 목적이 《북수뇌부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켓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두고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의 총과산으로 파멸의 위기에 빠진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최후발악, 마지막도박인 것으로 하여 더욱더 위험천만한 모험성을 띠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의 특대형도

발광판에 지금 공화국 천만 군민의 보복의지는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자위의 군사적힘을 억척같이 다져온 공화국은 내외호전세력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단애에 짓몽개버릴 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그 무슨 《특수작전》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것은 결코 적대세력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특수작전》홍제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공화국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자기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게 될것이다.

흥기를 꺼내든 강도의 무리들이 승냥이이발을 드러내고 집어삼키려고 노리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수수방관할 공화국의 군대가 아니다.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특수작전》,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과

남조선반통일역적패당의 최후멸망을 고하는 역사적사변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날강도적인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이 백두산강군이 지켜서 있는 이 땅에서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무슨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에 투입된 자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어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없이 백두산강군의 섬멸적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는 남조선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과 미본토의 침략의 아성을 핵조준경안에 집어넣고 적대세력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천하무도한 군사적망동이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끓는 피를 조국에 바쳐

흉악무도한 원수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역량과 수단들을 끌어들이며 감히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노린 《특수작전》을 벌린다는 소식에 분노의 피가 끓어오른다.

어디다 대고 감히 주먹질인가. 하늘의 태양에 대고 샷대질하는것이야말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

대결정책의 총과산으로 제명을 다 산자들의 가스로운 최후발악이다.

이제는 적대세력들이 그 대가를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하게 치르어야 할 때가 온것 같다.

세기를 이어 전승의 신화만을 창조해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최고리

익을 건드리려는 오만 무례한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불은 불로, 《특수작전》에는 우리 식의 번개같은 특수작전으로.

끓는 피를 조국에 바쳐 전쟁광중에 사로잡힌 미친개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야 말겠다.

로농적위군 대원 주정송

최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감히 《특수작전》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다는데 특별한 앓은 자들의 히스패닉적광기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최고준엄을 어찌보겠다고 달려드는 적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만이 있을뿐이다.

강도가 총을 들고 달려들면 대포를 내대고 핵폭동이를 휘두르며 달려들면 정의의 핵억제력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이 바로 공화국군민의 본때이다.

나는 어제날 군대에서 원쑤격멸의 각오를 안고 군사훈련으로 날과 날을 보내던 사람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언제 한번 군복을 벗은적이

없다. 《선제타격》은 침략세력의 독점물이 아니다. 《특수작전》 역시 그렇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나는 이 손에 남먼저 총을 쏠것이다. 등불보고 날아드는 부나비처럼 제 죽을줄 모르고 설쳐대는 내외호전광무리들은 용납 못할 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교장 리철용

평화수호를 위한 의로운 투쟁

남조선에서 내외호전세력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규탄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비록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은 끝났다고 하지만 4월 말까지 감행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짙은 화악내에 휘감겨있다.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외피까지 집어던지고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며 공세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불량난소동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고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쟁화약고나 같은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내외호전세력들의 광기어린 북침전쟁소동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갈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호전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쉽사리 핵전쟁으로 화하여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하고 우리 민족도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가져올 후과를 경고하며 반전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3월 2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싸드배치반대!》 〈한〉 미련함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 시 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공동행동에 참가한 범민련 남측본부 교문은 미국은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획책하는데 조선반도가 가장 첨예한 위치에 내몰리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은 《싸드》를 쏘아내고 이 땅을 나가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초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몰아냈듯이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대표는 《싸드》를 배치하고 전쟁연습을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초불항쟁을 통해 우리 민족의 힘을 똑똑히 보았을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싸드》배치를 강행하고있는 미국은 전쟁도발을 중단하고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싸드》배치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은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올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남조선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수많은 군사장비와 전력을 동원하여 북침핵공격인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살인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행동참가자들은 4월 8일 성주에서 진행될 《싸드》배치반대투쟁, 4월초에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포항에서의 연합상륙훈련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세력들이 동참할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3월 25일 바다우의 《싸드》로 불리는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스레엄》호가 제주해군기지에 기여들자 이 지역인민들은 해군기지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의 섬에 파국을 물고 올 미해군 함정의 입항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리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해군의 제주도주둔은 제주도인민들에게 평화를 주는것이 아니라 전시 또는 준전시로서의 고통만을 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전쟁의 불꽃이

들의 본토로 번지는것을 막기 위해 조선반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속심을 보일것이 아니라 전쟁장비들을 당장 끌어내갈것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초불집회를 열고 《초불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밑에 박근혜구축, 황교안퇴진과 함께 《싸드》철회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었다. 집회장곳곳에서는 《평화는 오고 《싸드》는 미국으로!》의 구호가 연속 울려나왔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거세지는 반전투쟁은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서 구원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으로서 너무도 정당하다.

시시각각 타들어가는 북침전쟁도화선의 불꽃을 제때에 끄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시대의 요구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감을 안고 미국과 그 추종분자들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너도나도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싸드》로 도 못 막는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싸드》를 한사코 끌어들이느라 발광이다.

마치 《싸드》만 배치하면 그 어떤 미싸일도 다 막을수 있는것처럼 보수언론들은 요란히 광고도 한다.

정말로 《싸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는가.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방성과 특군성이 2015년과 2016년에 작성한 《싸드》관련 보고서내용에는 그렇지 않다.

《싸드》는 불리한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력 즉 《극한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낼 능력》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요격효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이다.

지금까지 17차례의 요격시험을 했다고 하지만 일기에보를 미리 보고 날씨가 좋으면 요격시험을 했고 날씨가 나빠지면 취소, 연기하였다고 한다.

말그대로 《싸드》는 공방세상에 태어나 환경에 적응되지 못하는 갓난애와 같다는 소리이다.

《싸드》에 배비된 미싸일의 요격능력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싸드》는 최저요격고도가 40km, 최고요격고도는 150km이기때문에 요격고도의 아래로, 혹은 그위로 날아가는 미싸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지상과 수상 10m, 지어 2~3m로 날아오는 순환미싸일과 같은 경우에는 《등잔밑이 어두운 무기》가 되고 150km이상이면 《닭쫓던 개》처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명령구리무기라는것이다. 사실 40km~150km사이라고 해도 기만탄을 사용하거나 여러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싸드》레이다능력으로는 분간하기 힘들고 거기에 날씨가 지 영향을 주면 《란시효과》를 일으킨다는것이다.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돌입하는 탄도로켓에 대한 요격시험은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수송기에서 락하식킨것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것으로 하여 실효성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하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싸드》야말로 발육부전의 미숙아, 결함투성이의 불량품인것이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것은 《북의 미싸일로

부터 남조선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드》의 레이다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을 시야에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야망과 대아시아배전략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격화시키는 화근덩이를 마치도 핵방패, 보호신처럼 여기며 한사코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전쟁은 날세를 봐가며 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쏘다면 요격해보라고 로켓트를 한방씩 쏘는것도 아니다.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공화국의 탄도로켓트들을 《싸드》로 막는다는것은 화살로 총알을 쏘아맞히려는, 우산따위로 불소나기를 막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남조선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싸드》를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는것으로 하여 아무런 덕보 못보면서 오히려 루 감당할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재난만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최악의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신성한 조국강토를 더럽히는 미군을 철거시키라

재 유럽 동포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재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가 3월 27일 공동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녘동포들을 반대하여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핵전략자산을 모두 끌어들이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특수부대까지 투입하여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표시하였다.

허망한 《북 붕괴론》망상에 빠져 개성공업지구를 결판내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었으며 《국정》을 룡락한 《정권》의 악폐에 분노하

여 초불을 켜든 남조선민중이 사악한 민주주의파괴자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검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구속명장을 청구하게 하였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북, 남, 해외동포들은 조국땅이 핵전쟁으로 불모지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이 어디로 향하고있는지 똑바로 알고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이 하루속히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신성한 조국강토를 더럽히는 미군을 철거할것을 성명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판 《이멜다》

지금으로부터 31년전인 1986년, 필리핀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대중적항쟁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세인의 이목을 끌어당긴 것은 비단 쫓겨가는 마르코스의 비참한 운명뿐이 아니었다. 대통령궁에서 발견된 그의 처이멜다의 무려 3000켈레나 되는 구두였다.

모두들 그 수자에 아연실색했다. 몇십켈레도 아니고 무려 수천켈레의 여자신발이 발견되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이후 《이멜다의 3000켈레 구두》는 독재권력의 사치를 상징하는 유행어처럼 불리워왔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줄기찬 초불투쟁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 력사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를 보느라 필리핀의 이멜다가 생각한다.

박근혜는 지은 산갈은 죄로 하여 인민들의 증오와 배격을 받은 악녀로서 부화방랑과 사치를 추구해온데서도 이멜다와 짝지 않는, 오히려 더한 추녀라고 할수 있다.

이멜다가 갖은 고급구두로 악명을 날렸다면 박근혜를 더욱 치사스럽게 해주는것은 그의 갖은 옷바꿈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그 누구보다 옷을 자꾸 바꾸어입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3년 2월 25일 하루동안만도 그는 무려 다섯벌의 옷을 갈아입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링 빈 머리, 모자라는 능력을 옷으로 가리워보려는듯 박근혜는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그 빈번한 해외나들이도 옷차림에 모든 신경을 쓰며 언제한번 같은 옷을 입고 나다니적 없다. 아침에는 이 옷, 저

녀에는 저 옷, 색깔도 문양도 다종다양했고 치마저고리도 이것저것 수시로 갈아입곤 하였다. 마치 박근혜는 《대통령》의 정사를 보러 해외에 나간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차림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 나간것 같았고 권력자가 아니라 옷을 광고하는 한갓 모델처럼 느껴지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박근혜보고 《패션정치》를 한다고 하였겠는가.

2014년 인터넷신문 《단비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인가, 패션스타인가》라는 희귀한 글이 실린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글은 《취임 1년동안 박근혜가 착용한 옷을 일일이 집계해보니 122벌이다. 3000켈레의 구두가 발견된 빈축을 샀던 이멜다와 뭐가 다른가? 《대통령》이 옷바꾸임이라고 경제가 살아날까. 패션보다는 정치에 더 신경쓰면 좋겠다.》라고 역도를 힐난하였다.

박근혜에게는 옷을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따로 있었다. 그곳에 빈번히 나타난 선무당 최순실이 2013년부터 4년간 년의 옷과 의상실비로 3억 8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옷에 환장하고 걸치장놀음으로 집권 수년간을 보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인격이 고상해야 옷도 고상하게 입겠는데 악녀이고 저속한 취미이다보니 박근혜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외국의 한 의상전문가도 《박근혜의 옷차림은 직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색깔, 저처럼 뺏뺏하게 세운 목

깃, 커다란 주머니, 몸에 맞지 않는 혈령함 등은 갑옷처럼 느껴져 다른이의 범접을 막고있다. 옷을 만들적으로는 상대와 나란히 세워놓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고 독존으로 만들었기때문이다.》라고 비난하였었다.

박근혜가 남조선판 《이멜다》로 불리워진것은 《대통령》이 되기 썩 이전부터였다.

2007년 7월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어제 독립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정장을 130벌이나 갈아입었다. 옷값만 1억이 넘는다. 이멜다 박(박근혜)을 보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력사적후회가 있을것이라고 본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의 우려는 10년이 지난 오늘 그대로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로 되었다. 사람들이 죽건 말건, 남조선이 망하건 말건 제 몸치장에만 극성이고 제 살궁냥만 한 독재자 박근혜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수년간 피눈물을 흘려와야 했다.

《백성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민생이 도란에 빠지고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강건너 불보듯하며 하루에도 이 옷, 저 옷 갈아입으며 번덕을 부린 박근혜를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그가 《진짜 잘한것은 옷차림》이라고 조소를 퍼붓고있다.

아마 박근혜가 집권해서 이날 이때까지 화사한 웃음을 날리며 갈아입은 옷을 한줄로 쌓아놓는다면 산높이에 이를것이다.

그 수백수천벌의 옷에 들어간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왔

겠는가. 청와대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의 고혈인것이다.

박근혜는 보통사람들이 꿈도 꿀수 없는 수백수천만원짜리 손가방을 늘 팔목에 걸고 멧을 뽐내며 외국나들이를 비롯한 행차를 하였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손가방과 구두들을 다 찾아내도 큰 전시장을 가득 채울것이다.

박근혜는 옷과 신발로만 사치와 패륜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주글주글하고 독기풍기는 얼굴을 《아름답고 선량하게》 분칠해보려고 거기에 들인 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가 《비밀보안》을 운운하며 특검도 못 들어오게 가로막은 청와대로 《비선》의 사들과 미용사, 《기치로야즘마》를 비롯한 별의별것들을 수년간 매일같이 출입시켜 물의를 빚은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는 《국정》을 돌보아야 할 청와대공간을 특대형 《국정》룡단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얼굴성형수술을 하고 《울림머리》 등 머리단장을 하며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형유흥장으로 만들었다.

권력과 자본의 검은 결탁관계에 의해 《세월》호가 뒤집혀져 바다에 가라앉고 그안에 있던 수백명아이들이 바다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있을 때 이 악녀는 청와대에서 태연한 미소를 짓고 제 얼굴의 잔주름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받고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세월》호가 다시 떠올라 역도의 귀족같은 살인만행을 만천하에 다시금 고발해주고있다.

총에 맞아 죽은 제 에미의 머리형태를 본따 《울림머리》를 하는데 그동안 들인 국성의 0.01%만이라도 백성들에게 돌렸다면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도 죽지 않았을것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삶이 지금처럼 처참하게 붕괴되지는 않았을것이다. 인민들을 《개, 돼지》처럼 짓밟으면서 사치와 치부에만 열을 올리다못해 민심의 증오와 탄핵심판을 받고 원래 살던 집으로 쫓겨나와서도 매일아침 미용사들을 불러들여 머리다듬기에 여념이 없었으니 그한테는 약도 필요없다.

《유신》독재의 칼부림을 일삼은 제 에미 따라하기를 하다가 《유신》광너로 지란받고 제 에미의 《울림머리》를 따라하다가 종당에는 그처럼 비참한 운명을 당한 인간말종 박근혜이다.

수십년전 필리핀의 언론들과 세계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대통령궁에서 발견된 3000켈레의 구두에 대해 법적 떠들자 이멜다는 이런 철면피한 수작질로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하였었다.

《사치가 아니라 필리핀의 구두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내 옷장을 수색했을 때 해골대신 신발이 나오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구두산업을 진흥시키겠으면 공장에 가서 할것이지 왜 대통령궁에서 구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냈겠는가. 악녀들은 이처럼 뻔뻔스럽다. 최근 인간백정 전두환역도와 한통속인 리순자가 《우리도 5.18의 희생자이다.》라고 쓴 자서전

이라는것을 발간하여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천하악녀 박근혜가 그때와 비슷한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저는 정치인생 18년에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 신장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수 있겠는가 하는 한가지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한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을 《세월》호처럼 처참한 붕괴의 나락에 몰아넣고서도 털끝만 한 죄의식이나 반성도 없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난 주제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것》이라고 한 악녀의 궤변중의 궤변도 《누가 진짜 독재자였다? 진실은 밝혀질것이다. 매일이면 태양이 떠오를것이다.》라고 회째게 웨친 이멜다의 추한 모습을 련상시킨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과 《박사모》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한중도 안되는 보수명거지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 《대통령》 님을 사랑합니다.》고 주절대며 사람들을 웃기고있다.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인가. 박근혜가 사랑해온 추한 옷차림을, 그 피상망측한 《울림머리》를, 백성들을 죽이면서 저하나만의 사치와 향락을 추구해온 그 더러운것을?

남조선인민들을 배신하고 민족을 반역한 만고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는 이제 초췌한 죄수의 몰골로 력사의 단두대에 서게 되고 역도가 입던 가지가지의 역스러운 옷가지들은 두고두고 세인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지금 남조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검찰수사와 언론들을 통해 년이 저지른 범죄사실들이 계속 드러나 각계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박근혜가 집권기간 최순실에게 넘겨준 119건의 비밀문건가운데 남조선미국정상회담 관련자료를 비롯한 30여건의 극비문건들도 들어있었다는 사실과 역도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동향보고서까지도 감시대상인 최순실의 손에 체계적으로 들어간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폭로하였다.

그런가하면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최순실일당이 삼성그룹뿐아니라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특별사면과 세무조사무마 등 각종 특혜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었으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국기업연합회》(이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협공갈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어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3년동안 《어버이련합》과 《엄마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에 600여만US\$를 쥐여주어 친 《정부》 집회로 내몬 진상도 드러났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것은 《통일대박》타령도 최순실의 머리에서 고안된것으로서 《통일》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한번 더 해먹기 위한 각본이었다는것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이

것이야말로 박근혜가 권력욕에 얼마나 환장한 사악한 민족반역자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박근혜에 대한 구속리유가 차고넘친다.》, 《범죄혐의를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 감이다.》고 하면서 역도년을 하루빨리 구속처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도 주장하는것처럼 끝을 모르고 계속 드러나고있는 박근혜의 각종 범죄행위들은 단순히 역도년을 구속하여 족쇄나 채우는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년의 죄악은 두고두고 력사의 교훈이 되게 가장 준엄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해야 할 특대형범죄이다. 죄로 따지면 극형을 주어도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운운하며 만인을 경악케 한 특대형 죄악을 전면부정하고있는

박근혜의 뻔뻔스러움이야말로 세기적악녀만이 할수 있는 추태인것이다.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은 탄핵에서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민족의 수치이며 만고역적인 박근혜와 그 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초불은 지금도 어둠을 태우며 활활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선무당이 조종해온 《대북정책》

얼마전 남조선신문 《중앙일보》가 폭로한데 의하면 특대형추문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장시호(최순실의 조카)가 특검조사기간 박근혜의 《통일대박》타령에 대해 제 이모인 최순실의 머리에서 고안된것이라고 실토했다고 한다. 지금 이와 관련하여 남녘의 각계층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이로써 박근혜의 《통일대박》타령을 비롯하여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소동들이 선무당 최순실의 각본에 따라 연출되어온것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미 특대형추문사건이 터진 후에 개성공업지구 폐쇄가 최순실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결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여론의 분노를 자아낸바 있다. 그런데 《통일대박》타령도 최순

실의 창안품이라니 민족의 운명, 통일과 직결되는 북남관계문제도 선무당의 장단에 따라 처리해온 역도년의 죄악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도대체 박근혜는 최순실의 지휘봉에 춤추며 북남관계를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는가.

《북이 3년이면 망한다.》는것이 박근혜의 귀에 대고 한 최순실의 말이었다. 최순실의 말이라 면 덮어놓고 믿고 따르는 한갓 인형에 불과한 박근혜는 귀가 솔깃하여 북과의 화해협력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동족을 모해암살하려는 범죄적소동에만 매달려왔다.

6.15의 유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숨줄기였던 개성공업지구도 완전폐쇄하고 《북인권》소동, 초강도제재와 압박소동,

《대북심리전》재개, 법외적인 《통일외교》늘음에만 미쳐돌아갔다.

그러니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이 더욱 증대되고 전쟁위험만 끝없이 높아가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의 극악한 동족대결망동의 4년으로 북남관계는 완전폐허로 되고 남은것이란 이제 전쟁이 어느 시각에 터지겠는가 하는 현실적위험과 우려뿐이다.

민족이 바라는 통일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이처럼 겨레를 재난의 구렁렁이에 빠뜨리려고 외세와 작당하여 온갖 못된짓을 다한 박근혜이고 그가 추진해온 범죄적인 《대북정책》이다.

최순실이 하라는대로 놀다가 최악의 국정추문사건을 빚어내고 탄핵의 비참한 운명을 당한 박

근혜때문에 민족의 통일과 직결된 북남관계도 녹아나기만 했다.

그런 꼭두각시 대결 《정치》를 받들어 《청와대하마지》, 《최순실의 나팔수》로 지금껏 통일에 역행하는 일만 해온 남조선의 통일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저들의 머저리짓을 통틀어 반성해보아야 할 이때에 《통일대박》은 《최순실의 전 련관성이 없다.》느니, 《장시호의 말이 신 퇴성이 없다.》느니 뛰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통일부패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가련한 존재들인가.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의 꼭두각시노릇을 해왔으면 두년이 다 육에 갇힌 이제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류현철



이것이 진실이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구원의 팔을 안타깝게 뻗었던 《세월》호가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실은채 어두운 바다속에 잠겼던 때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류수같은 세월이겠지만 아직도 《세월》호에 어린 시신들을 두고있는 유가족들에겐 하루가 삼추같았던 세월이었다.

죽었던자의 생환이라고 할가.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을 그대로 품은 《세월》호가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되어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의 령혼인양 물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처참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이렇게 전했다.

박근혜가 살인자다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파괴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박근혜패당의 집단학살범죄이다.

물론 기술적원인이나 운항미숙 등의 요인으로 배가 항행중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지어는 침몰까지 할수도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처다.

《세월》호참사당시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까지 승객들을 구원해낼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얼마든지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에서 《광》하는 소리가 나고 그로부터 한시간이 지나서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6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있었다 한다. 더우기 《세월》호가 침몰된 곳은 바다기슭에서 눈으로 뵈는 바이는 3km 떨어진 수역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옳바른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지어 고의적으로 태공함으로써 배를 고스란히 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박근혜의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실이 재난구조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아니》라고 하면서 애초부터 구조에 낮을 돌리지 않았다.

박근혜역도자체가 《세월》호조난당시 승객들의 운명이

《가라앉은지 1 075일만이 다. 모로 누워 바다에서 부상한 《세월》호! 아프고 쓰린 마음, 진실을 향한 그 념원. 녹슬고 찢기고 물때가 끼여 검붉게 변해버린 그 모습은 3년 동안 인양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유가족들의 찢긴 가슴처럼 참혹했다.》

《세월》호는 찢기고 검붉게 변해버린 모습으로 모로 누운채 지금 그 유가족들과 땅우의 산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웨치는듯하다.

살인자다

경각에 달했는데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라는것을 받았고 그나마도 구조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지지도 주지 않았다.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시간이 지나서야 마지막에 상통을 내밀고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라는 왕청같은 소리나 내뱉었다.

머리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흐르다고 당시 사고현장에 먼저 나타났다고 하는 해양경찰이란것 역시 승객들을 구원할 대신 배를 버리고 탈출해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처신하고 달아났다. 그런가하면 사고 발생직후 전라남도 119구조대에 소속되어있다는 직승기들이 현장에 날아왔다고는 하지만 《해양경찰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가로막음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각에 아무런 구조활동도 할수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그 패당은 선실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수도 고의적으로 구조를 외면한것이다.

《세월》호의 《과적문제》라는것도 제주도해군기지용건설자재를 과도하게 처실게 한 남조선당국에 있다는것이 이미 드러났다. 또 박근혜의 청

와대폐거리들이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면 《《세월》호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질것을 우려》하여 《《세월》호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은 사실》도 폭로되었다.

승객들이 선실에 갇힌채로 침몰하는 배를 뺨개치고 저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살인범죄자라면 고의적으로 참사를 빚어내고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는 그 살인주범인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악녀는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여기저기에 책임을 전가해내고 나중에는 직접적인 처벌은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이 받아야 한다고 나발했다.

이를 두고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박근혜가 《세월》호

살인악마를 용서치 말라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분명했다.

바다에서 수백명의 아이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이 늙은 마귀는 꽃망울같은 어린 생명들은 알은체도 않고 추한 낫찍의 주름을 펴고 닭동지같은 머리를 틀어올리느라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안방에 나자빠져 쾌락을 즐겼다.

길을 가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가던 길도 멈추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것이 인지상정이다.

미물인 짐승들도 새끼를 잃으면 단장의 슬픔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런데 명색이 《대통령》이고 《국모》로 자처한 박근혜는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수백명의 아이들이 안타까이 구원을 요청하고있을 때 쭈그러진 상통이나 주무르고있었으니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더우기 박근혜는 원통하게 수장된 어린 자식들을 찾고 부르는 유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차고 넘치는 때에 화사

선장에게 책임을 넘겨쳐주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몰타기하려는 시도》,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한 인재》, 《박근혜는 살인자이다》, 《서방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국가적비극에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것》이라고 이미 단죄하였다.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해 죽게 만드는데 살인지령은 돈과 권력이 없는 무권리한 남조선인민들에게 던진 박근혜 《정권》의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소리였다.

그 살인구호가 통용되는 박근혜세상에서 바다에 빠진 수백명의 아이들이 구원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원한서린 눈을 감은것이다.

용서치 말라

한 옷을 떨쳐입고 봄바람에 취한 창녀마냥 미국상전을 청와대안방에 끌어들여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갔다.

국민은 《개, 돼지》로 보였고 외세는 분명 하네비였다. 그러했기때문에 언젠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정의의 징벌을 받았을 때는 해외행각도중에도 황황히 돌아와 직방 병원부터 달려가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갖은 아양을 다 편것이다.

박근혜는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그들을 탄압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회피해왔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금도 적이다》, 이렇게 악설을 쉼쳐댄것이 바로 박근혜역적패당이다.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

을 요구하는 피해자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을 《내란선동군》, 《시체장사군》이라고 모독하고 지어 단식투쟁을 벌리는 유가족들앞에서 음식냄새를 피우고 먹자판을 벌리면서 괴롭히는것으로도 모자라 《제대로 단식했으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는가》, 《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연극이다》고 조롱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추모행사와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몰아대면서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대다 못해 실란을 재운 자동총까지 들고나와 진압해나갔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국의 치밀리는 만행을 성토, 단죄해나선 문예인들에 대해서까지 《검은 명단》이라는 데 올려놓았던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박근혜패당의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국제사회도 얼마나 경악했는지 외신들은 인터넷에 《살아있는 시신들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록편집물까지 올렸다. 국제대사령도 유가족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을 두고 《《세월》호참사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고 반인륜적행위이다》, 《평화적집회와 시위에 대한 진압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은 원한품고 간 령혼들을 두번다시 죽였고 평생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족들의 가슴에 수백번도 칼질을 해댔다.

《세월》호의 어린 령혼들은 지금도 절규하고있다.

자기들을 산채로 수장해버린 살인귀 박근혜를 복수해달라고,

자기들의 주검우에서 추악한 향연을 베풀 박근혜를 징벌해

달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에까지 침을 뱉은 마귀년을 죽음으로 갚아달라고,

* * 《세월》호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민생을 깡그리 짓밟은 살인악녀 박근혜는 얼마전 기자들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것이다》라고 철면피하게 뇌까렸다.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3년만에 물우에 드러난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웨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세월》호가 말해주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다름아닌 박근혜가 살인자라는것, 지난 수년간 제년의 살인죄악이 드러날가봐 진상규명을 회피하며 배의 인양도 고의적으로 가로막아왔다는것이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도 《박근혜를 끌어내리자마자 《세월》호가 올라오고있다.

3년동안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기를 쓰고 못하게 막은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출근조차 안했던 박근혜와 단순교통사고라 우기던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을 짓밟고 권력자에 아부하는 령혼없는 관료가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자유한국당》과 판로적폐를 청산해야 할 리유중 으뜸이 《세월》호이다.》, 《검찰과 《대통령》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 레우 운운하며 어영부영 넘기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고 성토하고있다.

지금도 진도앞바다의 검푸른 파도는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물속에 수장된 수백명 아이들의 환과 자식들을 애타게 부른 부모들의 괴맺힌 절규를 담아실고 끝없이 격랑치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력

《거짓이 가라앉으니 진실이 떠오른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남조선에서 《세월》호가 인양된것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련일 울려나오는 목소리들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는 지난 3월 22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되어 있던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침몰되어 2년 11개월만이다.

바다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는 순간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고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은 물론 온 남조선민심이 배가 저모양이 되도록 인양을 하지 않은 박근혜역적무리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표출한것은 물론이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3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남조선인민들은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해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자기 활동을 거의나 하지 못하였다.

박근혜가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적당히 할데 대하여 지시하고 2016년 4월 《특별조사위원회활동에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떠들었는가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죄는 감출수 없다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도 《세월》호인양과 관련하여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 책임론이 커져서 부담스럽다.》고 한것은 그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로골적으로 방해해나섰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적》이라고 외곡하는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돈과 결부시키는 철면피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지어 보수당국은 《어버러런함》, 《엄마부대》

와 같은 우익보수세력들을 내몰아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이라고 모독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리게 하였다. 박근혜역적무리들의 조직적이고 비렬한 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되지 2년도 못되어 해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5.18학살》과 같다. 전두환역도가 광주민중화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한 범죄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처럼 박근혜도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어들이 질어도 진실은 언젠든지 밝혀지기마련이다. 란핵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야 할 신세에 놓인 박근혜와 그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오랑수를 다 써도 수백명을 죽음에 몰아간 살인자, 살인 《정권》의 범죄적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왔으며 인양업체를 선정 한 후에도 날씨와 바다물흐름 등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

현실은 선체인양을 3년 간이나 질질 미루어오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역대년의 부역자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 고있다.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5.18학살》과 같다. 전두환역도가 광주민중화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한 범죄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처럼 박근혜도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어들이 질어도 진실은 언젠든지 밝혀지기마련이다. 란핵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야 할 신세에 놓인 박근혜와 그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오랑수를 다 써도 수백명을 죽음에 몰아간 살인자, 살인 《정권》의 범죄적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세월》호로와 7시간

남조선에서 《세월》호인양을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배가 수면우에 떠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7시간이라고 한다. 이 7시간의 의미가 남조선에서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년전 《세월》호가 뒤집혀져 바다에 가라앉고 배와 함께 수장된 아이들이 바다밑에서 살려달라고 피나게 울부짖고있을 때 난 몰라 하는 식으로 박근혜가 청와대판자의 침대우에 누워 얼굴조부를 가꾸고 머리치장에만 전념하던 시간이 무려 7시간이었다. 이 《7시간의 의문》이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인 박근혜의 살인죄악을 파헤치기 위한 핵심의제로 남조선에서는 오래동안 관심과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이뿐이 아니라 지난 3월 21일 검찰조사를 받고난 뒤 박근혜가 자리에 그냥 앉아 제년의 죄행이 적혀 있지 않나 두눈을 부릅뜨고 검찰조사기록을 검토하는데 들인 시간도 역시 7시간이다.

도저히 용서 못할 죄악의 7시간이고 그 산천도 분노할 살인죄악을 감추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쓴 치떨리는 7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박근혜편이 아니었다. 인간을 해친 죄악은 무엇으로도 감출수 없고 진실은 언젠든지 밝혀지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란핵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가 인양된것도 한갓 우연이 아니다. 그것저보려고 7시간이나 허비했던데 정작 수백명의 아이들의 운명이 경각을 다 두던 그 한초한초가 귀중한 7시간동안이나 구조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단장만 보았으니 얼마나 대조적인것인가. 그런즉 살인악마 박근혜에게 있어 7시간은 꽃망울도 채 피지 못한 수백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한 사람한사람 목졸라 죽인 김철성

피눈물과 웃음은 너무도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온난함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을 때 혼자 웃음을 짓곤 한 악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박근혜이다.

《세월》호참사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번에 수백명의 아이들과 함께 바다물속에 잠기었던 《세월》호가 3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저기 검붉은 녹이 쓸고 젓기고 더진 처참한 모양을 하고 수면위에 드러난 《세월》호의 모습에서 유가족들은 또다시 열을 더뜨리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있었구나...》, 《이렇게 하루밤이면 올라올것을 왜 3년씩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있었느냐.》며 쓰리고 쓰린 가슴을 쥐어뜯는 유가족들의 눈가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침몰후 3년은 그야말로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분노의 긴긴 낮과 밤이었다.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숨진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을 합치면 아마 강물을 이룰것이다.

하기에 박근혜의 특대형권력추문사건을 규탄

하는 대규모초불집회들에서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기본주제의 하나였다.

유가족들은 물론 초불집회에 참가한 남조선의 수많은 남녀로소들은 《세월》호침몰의 주범은 박근혜이다. 《의문의 7시간을 국민앞에 공개하라》, 《박근혜는 내리고 《세월》호는

피눈물과 웃음

울리자.》고 하면서 즐기 찬 투쟁을 벌리었다.

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박근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가라앉았던 《세월》호는 수많은 의문과 사연을 안은 채 떠오르게 되었다.

비극은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세월》호를 바라보며 유가족들이 피눈물속에 몸부림칠 때 살인마 박근혜는 악마의 웃음을 짓고있는것이다.

침몰하는 배안에서 수백명의 아이들이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도록 선체벽을 허비며 살려달라고 애라게 울부짖을 때 남에게 쬐고 곱게 보이겠다며 상관주름살을 찌는 놀음과 머리치장에 미쳐있던 특대패륜아, 늙은 암개

가 바로 박근혜였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을 두고 《시체장사군》, 《세금에 눈독들인 도적들》이라고 모욕하며 《세월》호인양을 3년씩이나 의도적으로 미루어 온것도 바로 저들의 치명적인 죄상이 더욱 여론화 될가봐 두려워한 박근혜와 그 일당이였다.

이것만으로도 천추에 송납 못할 범죄사항으로 천벌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박근혜는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무엇이 좋은지 추한 상투에 웃음을 담았었다.

지난 3년전 팽목항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며 치를 떨던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날에는 삼성동에서 악마의 웃음을 보고 전율하고있다.

악한은 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것을 보면 그것이 흠족하여 너털웃음을 짓는다. 고대로마시를 불바다에 잠근 독재자 네로가 희열에 넘쳐 너털웃음을 지어던졌던것은 력사에 잘 알려져있다. 그런 인두검을 쓴 네로나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남조선을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

과 거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역시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소동으로 집권 수년을 허비하다가 종당에는 입기도 못 채우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송장보다 못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박근혜가 시키는대로 갖은 못된것을 다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온 그 부역자들이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게 대신 아직도 대결근성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저들 스스로 더러운 죽음을 앞당기는 가련한것이 아닐수 없다.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세가 무엇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몰덤 병술덤병하며 동족대결에 계속 열을 올려와야 저들의 목에 걸린 울가미를 스스로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고영수

도 보란듯이 그 흉물스러운 낯짝에 웃음을 담은 박근혜나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아닌, 인간백정을 초월하는 21세기 악마의 모습에서 온 민족이 분노로 치를 떨고있다.

하긴 수천만 우리 겨레가 흘린 피눈물이 삼천리를 적시게 만든 일본제국주의의 잔악무도한 식민지배가 《하느님의 축복》이었다고 서슴없이 망언을 늘어놓은 극악한 친일매국노를 총리로까지 내정했던 박근혜이고보면 수백명 아이들의 목숨썩이야 무엇이 대수이고 느껴지는 아픔이 있으랴...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는 구속이 아니라 처형해야 한다.》, 《저런 악마년이 3년간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피를 빨아먹었다.》, 《피눈물속에 말라죽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박근혜는 뻔뻔스러운 입가에 지었던 그 악마의 웃음의 대가를 처절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이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결코 그 무슨 《대응책》을 강구한다며 야단법석을 피우고있다. 얼마전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과 행정부의 부처 장관들, 외교안보전문가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안보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할것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핵 및 로켓능력의 고도화도 남조선이 《최악의 부역자들이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게 대신 아직도 대결근성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저들 스스로 더러운 죽음을 앞당기는 가련한것이 아닐수 없다.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세가 무엇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몰덤 병술덤병하며 동족대결에 계속 열을 올려와야 저들의 목에 걸린 울가미를 스스로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한편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사거리 70km이상인 자

박근혜역도 서울구치소에 구속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의 구속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도의 구속을 결정하는 령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법원에서는 검찰수사과정에 드러난 박근혜역도의 죄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범죄자료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이번에도 박근혜와 고용병호인단은 모든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리었다.

그러나 법원은 박근혜

의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할뿐아니라 역도가 도주하거나 증거들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령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따라 31일 새벽 박근혜는 탄핵된지 21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압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독감방에 갇히었다.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레우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결국 박근혜는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파 함께 전두환, 로태우에 이어 세번째로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과 절대다수 인민들은 박근혜가 구속된데 대해 옹당한 결과라고 적극 환영하면서 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지금 외신들은 박근혜역도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어 죄수복까지 입게 되었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만고역적 박근혜가 구속된것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온갖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역도에 내린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이 실효성도 없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아 그 누구의 《위협》을 막아보겠다고 하고있으니 어리석다고 해야 할것이다.

따지고보면 《상호확증

수 있다 말인가. 《5중》이 아니라 《10중방》, 《20중방》을 형성한다해도 어렵없을것이다. 《북핵외교》의 령역을 확대하겠다는것도 풍지박산난 반공화국공조체제를 부지해보려는 한갓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공화국과 계속 대결해보겠다는 것은 설을 쥐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우둔한 망동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생명안전권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안보보고서》 따위를 내놓고 저들의 친미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며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고 발광할수록 저들의 비참한 최후종말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도, 시간도, 최후승리도 공화국에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북핵외교 《안보외교》 단행

최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안보외교》타령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대대적으로 고취하고있다.

그들이 《천안》호침몰사건 7년을 계기로 벌리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바로 그러하다.

군부호전세력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지 7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그 무슨 《안보강조기간》을 설정하고 부대별 《북응징결의대회》, 《제2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같은것을 대대적으로 벌려놓는가 하면 수십여척의 함선들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의 주변해역들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은 《제2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같은 대결광대극들이 펼쳐지는 곳들에 머리를 내밀고 《북의 어떠한 군사적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히 응징할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느니 뭐니 하는 폭언을 내뱉으며 동족대결분위기를 한껏 조장하였다.

민족반역과 동족대결로 총체적과멸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아닐수 없다.

원인은 아직도 술한 의문속에 미해명으로 남아있다. 당시 리명박보수패당이 덮어놓고 《북어뢰》에 대한 침몰이라고 퍼터지게 고아대였지만 건져낸 《천안》호는 《북어뢰》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침몰되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의 침몰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리명박역도는 이것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해마다 동족대결목적에 악용해왔다. 지금도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북에 의한 《천안》호침몰을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을 곧이 듣는 사람은 남조선에도 거의나 없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천안》호침몰 7년을 계기로 그 누구의 《도발》타령을 운운하는것은 특대형모략남조국을 조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모략소동에 불과할뿐이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총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동족대결소동에 매달리는것은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사대와 매국, 동족대결과 파쇼독재만을 일삼던 박근혜의 파면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세력들은 물에 빠진 자 지푸레기라도 잡는다는 격언 그대로 지금 《안보외교》라는 지푸레기를 잡고 파멸의 늪속에서 헤어나오려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남조선에서 리승만이나 박정희를 비롯하여 력대적으로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던 자들은 언제나 남조선인민들

과 거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역시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소동으로 집권 수년을 허비하다가 종당에는 입기도 못 채우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송장보다 못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박근혜가 시키는대로 갖은 못된것을 다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온 그 부역자들이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게 대신 아직도 대결근성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저들 스스로 더러운 죽음을 앞당기는 가련한것이 아닐수 없다.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세가 무엇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몰덤 병술덤병하며 동족대결에 계속 열을 올려와야 저들의 목에 걸린 울가미를 스스로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한편 보고서에는 공화국의 사거리 70km이상인 자

《구결장관》의 《미친병》 증세

망동어가 뛰니 풀뚜기도 편다고 미국의 망동에 맞장구를 치며 《동맹강화》와 《대북제재》를 구결해대는것이다.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자르는 바보처럼 동족을 없애달라고 미국에 졸라대고있으니 《구결장관》의 《미친병》증세가 또 발작하는 모양이다.

명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주제에 가만히 틀어박혀나 있을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동맹강화》니, 《대

북제재》니 개하골같은 소리나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라는것이 이번에 비로소 생겨났건인가.

수십년동안 벌려온것이 고 미국이 들켜대노트를 하는 손아래 《동맹국》들까지 총동원하여 《유엔 70여년 력사에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징벌》이니,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니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소동을 벌리다 제풀에 주

저앉았던것도 멀지 않은 지난해의 일이다.

결과는 공화국군민의 반미적개심만 고조시켜 자강력으로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고 미국은 《전략적인내》의 완전한, 중국적실패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뿐이다.

과거는 오늘의 교훈이고 래일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제재따위는 공화국에 통하지 않는다는것쯤은 깨달아야 하겠지만 종말을 고한 박근혜와 함께 총파산된 대결

정책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또 허바닥이 닳도록 구걸질이다.

그러나 미국상전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들도 공여지책으로 늘 써먹던 제재딱지밖에 들고나올수 없는대야.

윤병세가 참 가련하기 그지없다.

그 발작증을 봐줄 날도 얼마 남진 않았다.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윤병세의 비참한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 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4월이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건만 1년 전 인간생지옥 남조선에 집단적으로 끌려간 딸들의 피라는 절규는 공화국의 부모형제들에게 미처 와닿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1년이 되도록 그들을 강제억류하고 한사코 송환을 거부하고있는것은 물론 아직까지 이들의 생사여부조차 똑똑히 공개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최근 내외의 비난어론에 직면한 남조선보수당은 언론들을 내세워 지난해 4월 중국 절강성 Ningbo에서 집단적으로 끌려간 12명의 공화국 여성종업원들이 《이달초 대학에 입학》하였다느니, 그것이 《이남사회에 순조롭게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를 이유로 그들이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다고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이

공화국의 여성종업원들이 《대학에 특례로 입학했다.》고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특대형유인람치범죄에 대한 내외의 비난어론이 확대되는것을 막아보려는 비열한 흥심의 발로이며 한갓 여론기만에 불과하다.

공화국은 람치당한 자기 주민들을 돌려보내라고 시종일관 요구해왔다. 생리별당한 이들의 부모들 역시 남조선당국의 천인공노할 유인람치만행을 까밝히고 송환 및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들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인권리사회에 보냈으며 자기들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보내어 자식들의 생사여부를 알아봐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은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죽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대면시킬것을 요구하는 퍼러지는 호

소도 외면해버렸으며 공화국의 여성공민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킨 지옥같은 곳에 가두고 몸서리치는 정신육체적고통과 박해,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로 《귀순》을 강요해왔다.

남조선당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의 정당한 요구도 무력대고 거부해나섰다.

동족대결광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세인은 람치당한 여성종업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 한지 그조차 모르고있다.

남조선보수당은 비열한 여론기만술책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사여부부터 똑바로 밝혀야 한다.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집단람치범죄의 주범이 바로 박근혜역도라는것은 이미 청천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역도의 지령에 따라 람치작전을 실행한것이 대결모략의 소

굴 정보원이다.

박근혜가 제가 지은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역사의 단두대에 목이 오른 지금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백주의 집단유인람치만행도 응당 악녀의 죄행목록에 포함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마땅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특대형인권범죄자들인 남조선보수당에게는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전대미문의 집단유인람치범죄의 내막과 공화국여성들의 생사여부를 즉시 공개하며 그들을 가축의 품으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가담해나설것이 아니라 응당 이러한 범죄를 문제시하고 12명 처녀들이 자기 가정과 조국의 품으로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부정부패를 유전적근성으로 물려받은 박근혜의 집권 4년기간 남조선군부에서 더욱더 진하게 풍기는 부패의 구린내는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시켰다.

꼭뒤에서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흐른다고 부정축재에 이골이 난 박근혜를 꼭잡은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에 의해 남조선군부 역시 부정부패의 람부장으로 되어버렸기때문이다.

남조선군이 얼마나 부패로 썩은 집단인가 하는것은 최근 군상층부에서 류행되는 《한탕주의》라는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한탕주의》란 남조선군상층부들이 저마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특금비밀까지 팔아 일확천금을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말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최측근, 충실한 하수인들은 막대한 퇴물과 인맥관계로 남조선군의 주요 요직들에 틀고앉아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꺼리낌없이 일삼고있다.

군상층세력들이 권력을 등대고 막대한 자금을 횡령할 때 장교들과 지어는 사병들까지도 식량과 물자는 물론이고 전투복을 비롯한 각종 군품들까지 사취하여 팔아먹고있는 형편이다.

오직 돈벌이에만 환장이 되어 정신육체적으로 타락한 오합지졸의 무리가 바로 남조선군이다.

정신적지지가 없이 타락한 오합지졸의 무리가 할것이란 범죄행위밖

에 없다.

최근 남조선군부안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집중도 낮을 불행 말세기적인 패륜패덕행위와 구타행위,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남조선군이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군부내에서는 공병삼, 췌지, 곡괭이 등 눈에 보이는 도구와 쟁기들이 다 폭행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군용전화기와 무전기같은 전기통신기계를 리용한 전기고문, 발가벗기고 성적수치를 주거나 대검으로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비롯한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수법들이 적용되고있다고 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남조선군부에서 발생한 구타, 폭행, 폭언 및 욕설 등의 건수가 3 846건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축소된 자료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구도의 염전 풍조와 상관들에 의한 구타, 심리적압박에 타락한 사병들은 퇴관과 폭악 등 전투물자들을 홀쳐다 민간인들에게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민간인폭행, 강간, 강도, 절

취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해 평균 3 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군을 더욱더 부패타락한 오합지졸의 무리로, 패륜패덕의 범죄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다름아닌 부정부패의 일등왕초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에 제갈길을 간 특등범죄자 박근혜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동족대결광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미친개 짓어대듯 《응징》이니, 《도발태세》니 하며 고아대는 보수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남조선군안에 극도의 염전, 염군풍조와 전쟁공포증이 만연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군사병들중 53%가 군복무에 거부감을 가지고있으며 해마다 평균 3 400여명의 청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있는 형편이다.

실태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친미보수세력들이 동족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고 허수아비군대를 내세워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겠다고 발버둥치고있으니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본사기자 황진욱

초불로 《보안법》을 철폐하고 량심수를 석방하자

남조선단체가 결의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추진회가 3월 25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총회를 가지고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것을 결의하였다.

총회에서 발언자들은 초불의 힘으로 민중이 권력을 쫓아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조를 마련하였다고 하면

서 민가협성원들의 30여년간의 줄기찬 투쟁과 그들이 뿌린 씨앗이 초불시위가 되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결의문이 발표되었다.

결의문은 민가협이 결성된 후 량심수전원석방과 《보안법》철폐,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초불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악폐청산으로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 악폐청산의 하나인 《보안법》철폐와 량심수들의 전원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립장을 밝혔다.

본사기자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1)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송도의 시골서 올라온 억기는 오늘도 한양 리상재의 집 대문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시뿌연 하늘에서는 피칠갑을 한듯싶은 별건 해당이가 벌써 상당히 서쪽으로 기울어졌었다. 그런데도 점심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리상재는 아직 넓은 한양거리의 어느 한 끝에 가있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리상재로 말하면 일찌기 조선의 근대적인 첫 정치단체인 《독립협회》 창설발기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회장을 겸하면서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민민공동회투쟁의 중심인물로 활약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죄》가 되어 감옥살이도 한 그는 《을사5조약》이 강압날조된 후 봉건정부에서 의정부참찬이란 벼슬을 주었지만 굳이 거절하고 애국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한일

합병조약》이 강압날조된 다음부터는 종교청년단체의 책임적인 일을 보면서 여전히 반일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한양장안에서 안면이 넓고 민심도 있어 리상재를 눈에 든 것처럼 여기는 왜놈들까지도 그를 함부로 다칠념을 못하였다.

이런 사람을 송도의 시골총각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는데는 퍼눈물나는 사연이 있었다.

그것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할수 있으랴. 지금도 녀달전에 당한 봉변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시무시한 악몽처럼 떠오르면서 이가 씹씩 갈리는 억기였다.

녀달전인 1917년의 해가 저물어가던 초겨울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억기는 부소산(개성시 목성리에 있는 산)에 올라 눈독은 양지쪽을 찾아다니며 술가리를 한잔 끓여주고 산을 내려고있었다.

기침약, 소화약으로 투효있는 차조기란 풀이 별로 많이 자라는 까닭에 부소산이라고 불리우는 이산은 역시 부소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개성 송악산으로부터 서남으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억기가 무거운 술가리짐을 지고 고려때의 경천사 석탑이 홀로 남아있는 탑골안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산을 내려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경천골에서부터 쓸어들는 요란한 쌍두마차들의 행렬이 탑골안으로 들이닥치는것이였다.

얼핏 보아도 쌍두마차들이 10여대는 넘어보였다.

요란스러운 쌍두마차행렬은 자그마한 탑골을 순간에 메워버릴듯싶었다.

우르르 밀려드는 이런 쌍두마차행렬을 난생처음 보는 억기는 단번에 어리벙벙해졌다.

지금껏 실개울이나 다름없는 금성천이 오불꼬불 흐르는 경천골안의 넓

못 들었다는걸 알면 다시 돌아나가 풍덕고을로 뻗어나간 경천골의 신작로를 탈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억기는 탑골 한편의 나지막한 대문을 등에 진 오두막같은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지금 저 초가집에는 앉고있는 할아버지가 홀로 누워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더라도 억기네는 대대로



이 초가집에서 살아오면서 경천사람을 지켜왔다는것이다.

먼 옛날인 고려시절에는 금성천을 낀 저야의 경천벌에서부터 여기 탑골안에까지 평정히 큰 궁궐같은 경천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러마



저 발속에 물허벅리고 다대리석으로 된 석탑 하나만이 이 골안에 외로이 남아있을뿐이었다.

그래서 석탑이 남아있는 이 골안을 탑골이라고 하고 그앞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골안을 경천골이라고 한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억기였다.

오호옹— 별안간 탑골안이 떠나갈듯 말들의 울음소리가 연방 울리었다.

(?)...

억기는 두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길을 잘못 들었을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차행렬인데 언제 여기까지 들어와서 마차들에서 뛰어내렸는지 술한 사람들이 13층석탑을 둘러싸고 떠들어대고있지 않는가.

억기는 호기심에 이끌려 나무짐을 벗어놓고 석탑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합박만큼 살진 궁둥이들을 들썩이는 흰말, 검은말, 누런말들도 눈길을 끌었지만 낯선 사람들의 행색은 더욱 억기의 눈길을 끌었다.

번쩍이는 금메안경을 낀 사람도 있었고 시누런 구리단추들이 눈을 부시는 검은

옷에 한발만큼 긴칼을 찬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래통이 좁은 누런 바지에 똑같이 누런 저고리를 입고 바줄이나 쇠장대를 든 사람들이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멋진 석탑을 처음 보는 모양이지. 하기가 새하얀 바위돌로 쪼아만든 고려시기의 13층석탑은 8도강산적으로 여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억기는 낯선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석탑에 기대섰다.

그러자 억기가 열여섯이 되는 이날 이때까지 언제 한번 들어본적이 없는 그 무엇이 제지는듯싶은 피상한 고희소리가 터져나왔다.

《칙쇼!—》

역시 짐승소리같은 피상한 소리를 지르며 칼찬 사람들이 억기에게 달려들었다.

《왜 이래요? 이걸 놓으라요!》

억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어도 역센 그들에게 붙잡혀 끌내는 석탑가까이에 있는 느리나무로 끌려가 쾅쾅 묶이우게 되었다.

《날 풀어줘요!》

억기가 애처로이 소리 지르며 사정을 하였지만 그자들은 징그러운 웃음만 지을뿐이었다.